

상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의연구

이 민 주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강사

A Study on the Shroud, according to Change of Mourning & Funeral Custom

Min-Joo Lee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Abstract

Mourning & funeral ritual means a various kinds of ritual procedures which begins at the time of death, buried and create a graveyard, a manner of wearing funeral garment being mourning the death, finally go back to everyday life.

Our mourning & funeral custom was burial at first time. After going through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The unified Shilla and Korea dynasty, cremation method has been prevailed. However, based on Chu-tzu celebration in Chosun dynasty, the burial custom has been widely spread again.

Nowadays, due to effective land utilization issue, excessive cost for burial and the change of thinking for cremation, the cremation is recognized as remedy of righteous funeral system. At this point, a shroud following existing burial custom burdens considerably for quality, price, size and design of it.

Accordingly, it needs a new style of shroud corresponding to crem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he shroud is required simpl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Firstly, in size, a shroud should be larger than plain clothes and differentiated in small, medium and large. Secondly, the material of a shroud would be white cotton, which can keep from pollution during burning time. Thirdly, it unifies the item. In case of man, 바지(把持, those are trousers), 저고리(赤古里, Korean-style jacket) and Durumagi(周衣, Korean topcoat). In case of woman, 치마(赤尔, those are skirt), 저고리(赤古里, Korean-style jacket) and Durumagi(周衣, Korean topcoat).

Key words : mourning & funeral, cremation, a shroud.

I. 서 론

상장례(喪葬禮)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부터 시신(屍身)을 매장해 묘지를 조성하고 근친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며 근신해 복(復)을 입는 방법과 일정한 기간동안 복을 다 입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때까지의 각종 제례(祭禮)의 의식절차를 말한다¹⁾. 이러한 상장례는 당대(當代)의 사회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같은 시대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여왔다.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민간신앙과 유교 규범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의례절차에 따른 매장문화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병원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관행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현세 중심적 생사관(生死觀)과 서구의 세속주의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혼재함으로써 장의 과정의 전통적 윤리관과 형식성이 변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도 급

속히 변화하게 되었다. 더욱이 개인주의의 성장과 젊은이 중심의 편의주의, 여성의 지위향상, 가족제도의 변화 등은 가부장제에 근거한 상례의 요인들을 약화시켰으며, 매장(埋葬)위주의 장묘 관행에 따른 묘지증가는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산업용지의 확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²⁾ 상장례에 대한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상장례 문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研究目的 및 意義는 우리나라의 상장례 문화의 형태를 고찰하고, 전통적인 수의에 대한 고찰과 현대의 변화된 수의를 비교 분석하여 상장례 문화의 변화에 따른 수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하며 그동안 기피현상을 보여왔던 우리나라 화장문화에 맞는 수의의 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인터넷을 활용한 on-line 장례업체들의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상장례문화

1. 매장문화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분묘형태는 고인돌로서 이는 기원전 10세기부터 3세기까지 유행했던 공동납골소로 추정되며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³⁾. 삼국시대 이전의 장묘제도 특징은 이중장제와 공동묘지제 풍습으로 이중장제는 사람이 죽으면 가매장을 하여 탈육시킨 후 유골만 수습하여 관속에 넣는 것이며, 공동묘지제는 사후에 유골을 수습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한 관속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가족묘제였다. 삼국시대에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매장을 하다가 통일신라시대에 들어와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법이 성행하였다. 화장 후에는 그 뼈를 뿌리거나 매장하기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불교식인

화장과 풍수지리식, 유교식 장묘문화가 공존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교적 풍수지리적 장묘관습이 주를 이루었으며, 억불숭유정책으로 화장을 금하고 매장제를 강력하게 시행했다⁴⁾. 조선 후기에 이르러 묘지 풍수신앙이 크게 신봉되어 이때부터 선산제가 시작되었고 묘역이 넓어지고 호화분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⁵⁾. 인구도 많지 않고 농경사회이기에 가능했던 이때의 매장관습이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깊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 우리의 상장례문화이다.

2. 화장문화(火葬文化)

화장(火葬)이란 시신을 태워 유골을 처리하는 방법(葬法)으로 화장한 유골을 뿔아서 산천(山川)이나 해수(海水)에 흩어버리는 산골(散骨)과 용기(容器)에 담아 특정한 장소에 안치하거나 지하에 매장하는 장골(藏骨)의 유골처리 방법이다⁶⁾. 화장문화는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부터 있어 왔던 오래된 장묘문화로 이에 대한 시대적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국시대

고구려의 화장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유물이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백제화장의 발생은 남달용기 안에서 당 고종 무덕(唐高宗武德) 4년(A.D. 621)에 처음 주조(鑄造)했다고 하는 개원통보(開元通寶)가 발견되어 7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⁷⁾. 신라의 화장에 관한 문헌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신라화장의 발생을 대략 7세기 초에서 중반 경으로 삼국시대의 유골 처리에 화장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⁸⁾.

2) 통일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문무왕(文武王)이 자신의 사후

1) 이영애, 상장례문화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국민의식구조와 태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 1999.

2) 조정래, 장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화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1999.

3) 지건길,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북한의 유적을 찾아서, 1991년.

4) 김홍은, 한국의 화장제도에 관한 연구, 중남대 농업과학연구, p.203, 1990.

5) 배성산, 한국장묘문화 개혁을 위한 제언, 중앙장례문화원, 1999년 11월 특집호.

6) 정길자, 신라 남골기 연구, 한국고고 학보, 제 8집, p.39, 1980.

7) 강인구, 백제의 화장분묘, 백제고분연구, 일지사, pp. 105-138, 1977.

8) 정길자,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고찰, 부산사학, pp.29-32, 1983.

장례절차에 대한 유언을 "임종(臨終)위 10일이 되면 관 공문 밖 뜰에서 인도의 의식에 의해 불로써 살라장을 지내라."⁹⁾고 기록하고 있으며, 문무왕 화장(671년) 이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화장할 것으로 기록되는 왕은 효성왕(孝成王), 선덕왕(宣德王), 원성왕(元聖王), 진성왕(眞聖王), 효공왕(孝恭王), 신덕왕(神德王), 경명왕(景明王)으로, 왕족 이하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화장이 과급되어 신라 멸망 955년까지 성행한 것으로 보인다.¹⁰⁾

3) 고려시대

고려는 불교를 국시(國是)로 하여 장법(葬法)은 불교의 화장법(火葬法)에 의하였으며, 화장의 절차는 화장(火葬) - 권안(權安) - 매골(埋骨)의 3단계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화장은 대체로 불사의 근처의 산록(山麓)에서 행하게 되었다.¹¹⁾ 일차장으로 화장한 유골은 사찰에 임시로 봉안하는데 이를 권안이라 하며, 그 기간동안 자손들은 불승과 조석으로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조상의 죽음을 애도하며, 권안 기간이 끝나면 매골을 하는데 매골은 이차장으로 사찰에 봉안한 유골을 땅속에 묻는 본장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¹²⁾

고려시대의 화장은 인종, 의종, 명종때까지 성행하였으며, 그 후 몽고침입이 시작되고 충렬왕 이후 주자학의 전래에 의하여 불교식의 장례제도가 금지되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시행을 주장하는 주자학자들의 건의에 의해 고려말에서 조선시대에 화장의 금법이 발효되었던 것이다. 결국 화장을 제약하고 매장을 권장하는 사대부들의 주자학적 유교제도의 주장은 불교식 화장을 금지하고 주자가례에 의한 토장(土葬)과 삼년상의 시행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사대부와 서민에 이르기까지 가묘(家廟)를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여 일대 전환점을 가져왔던 것이다.¹³⁾ 따라서 고려시대 이후 화장이 점차 줄어들고 매장의 등수가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4) 조선시대

조선 건국 초 태조는 억불숭유정책을 쓰면서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한 상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삼국시대부터 계속되어온 화장이 유교적인 사상의 계몽만으로는 쉽게 변화되지 않아 강압적인 제지와 처벌로서 매장풍토를 조성하고 있음을 성종실록 5년 4월 조에 보면, "근래 무민이 혹시 오승에게 속거나 장비를 아끼려고 부모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자신의 질병이 있을 때는 선조나 선친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분묘를 파서 그 시체를 불살라 버리니 이것은 풍속을 손상하고 교화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하여 부모를 화장하는 것을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으며 위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관리, 관령, 이정이나 가까운 이웃까지도 중론하게 하였다."¹⁴⁾고 기록한 것으로 화장의 금령에 따른 벌칙의 규정이 엄격한 관계로 고려 말까지 성행되었던 화장제도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상장례문화가 매장문화로 바뀌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5) 일본침략기 시대

일본에 의한 강압적인 통치체제로 전환되면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의식을 말살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묘지제도를 공동묘지화 하였으며¹⁵⁾, 조선시대에 금지하였던 화장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화장의 권장은 화장의 장점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식민지 수탈에 보다 주된 목적을 두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은 더욱 증대되어 해방이후 화장장의 가증은 시체를 소각하는 범주에 국한되어 특별히 사자(死者)의 유언이 있

9) 김부식, 三國史記 卷七, 文武王 21年條, 민족문화추진회, 1973.

10) 정길자, 前掲書, pp.42-43.

11) 김원룡, 한국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190-201, 1974.

12) 정길자, 前掲書, p.73.

13) 정길자, 上掲書, p.38.

14) 성종실록, 예조에서 조상의 시체를 태우거나 무덤을 판자들을 중형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다, 5년 4월 25일 조선왕조실록 CD, 서울 시스탬.

15) 조중식, 한국의 묘지- 한국묘지에 관한 법적 연구, 대원출판사, p.28, 1987.

거나 전염병환자, 객사자, 사고사망자, 사산아 등을 제외하고는 화장을 기피하여 왔다¹⁶⁾. 이로 인해 삼국 시대부터 존재해 왔던 화장문화를 거부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6) 현 대

현대에서 장묘문화의 인식은 국토의 1%가 묘지화 되어 있으며 이는 여의도에 3배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10년 뒤에는 물힐 땅이 없으며, 이로 인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면서 장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게 하고 있다¹⁷⁾. 외국의 화장비율을 보더라도 미국이 12%, 영국은 70%, 스위스 70%, 스웨덴 64%, 일본 97%, 태국 95% 대만 47.3% 등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¹⁸⁾. 따라서 지금까지의 매장문화는 바람직한 화장문화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논문¹⁹⁾들에 따르면, 장의 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이었고, 의식을 변화해야 할 내용으로는 과도한 비용 지출, 화장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탈파, 묘지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장의제도의 개선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지도층의 솔선수범, 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법칙 강화, 학교교육을 통한 홍보 등이²⁰⁾ 상장례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1999년 8월 24~30일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 찬성률이 본인일 경우 76.7%, 가족, 친지는 60.2%, 타인은 70.7%로 나타났다²¹⁾. 따라서 국민적 의식개혁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 올바른 장묘문

화로 정착할 것이라 생각한다.

Ⅲ. 수의에 대한 고찰

1. 전통 매장용 수의

수의(壽衣)란 사람이 타계한 후 염습할 때 시신에게 입히는 옷으로²²⁾ 옛부터 부모님의 회갑이나 진갑이 가까워지면 가풍과 직위에 맞추어 예복과 같이 생각하고 지어두는 것으로 부모님의 상사(喪事)에 입혀드리는 것이 상례이다. 수의에는 효가 담겨져 있으며, 대체로 삼 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에 명주나 단, 세포(細布)로 지어 두었다²³⁾.

1) 남자 수의

남자 수의로는 심의(深衣), 도포(道袍), 조대, 중치막(中致莫), 겹저고리, 속적삼, 겹바지, 속고의, 복건(幅巾), 목목(幪目), 과두(裹頭), 오낭(五囊), 약수(屨手), 버계, 턱받침, 버선, 허리띠, 대넒, 행전(行纏), 과두(裹肚), 소렴금(小殮衾), 대렴금(大殮衾), 천금(天衾), 지요(地褥), 습신으로 구성된다. 그림의 출처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이신 박선영 선생님의 전통 한복작품집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I) 심 의

심의는 대개 베를 사용한다. 상의의 길은 저고리 길과 같으며, 하의는 무 12개를 연결시켰으며, 소매는 넓고 수구와 도련에는 약 5cm 정도의 검은 선을 두른다. 띠는 베에 검은 선을 둘렀고, 넓이는 8cm, 길이는 385cm이다(그림 1).

16) 박석안, 화장장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9, 1988.

17) 조선일보, 국내 장묘문화 실태, 1994년 11월 14일

18) 조정래, 前掲書, p.47.

19) 양만성, 서울시 장묘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조정래, 前掲書, 1998.

임순길, 우리나라 장묘제도의 비용실태와 개선방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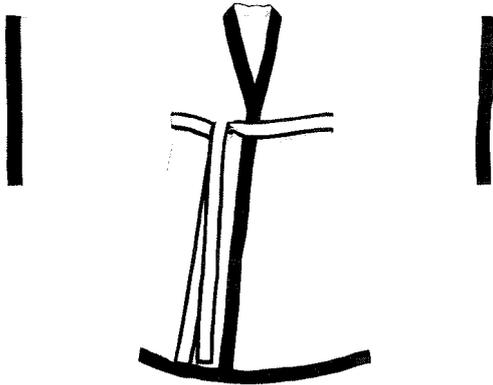
지성남, 환경적 사상적 고찰을 통한 장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20) 이영애, 상장례문화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국민의식구조와 태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7, 1999.

21) 중앙일보, 사회면, "본인 사후 화장 찬성 76.7%", 1999년, 9월 20일자.

22) 유송옥,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375, 1988.

23)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p.331, 1998.



<그림 1> 심 익

(2) 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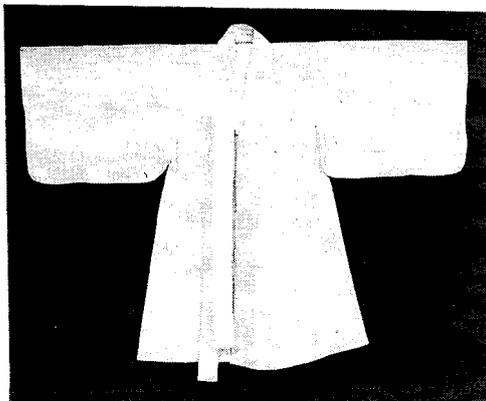
도포는 심의 밑에 입는 옷으로 소매가 넓고 큰 무가 달려며, 그 위에 전삼이 붙어 있다. 길이는 145cm, 소매 넓이는 57cm로 배, 명주, 단으로 만들며, 색은 흰색이나 옥색으로 한다(그림 2).

(3) 중치막

중치막은 도포 밑에 입는 옷으로 무는 없고 깃과 설만 단다. 소매가 넓고 옆이 전부 트인 옷이다. 중치막도 흰색이나 옥색으로 만들며, 길이는 143cm, 소매 넓이는 55cm로 한다(그림 3).

(4) 겹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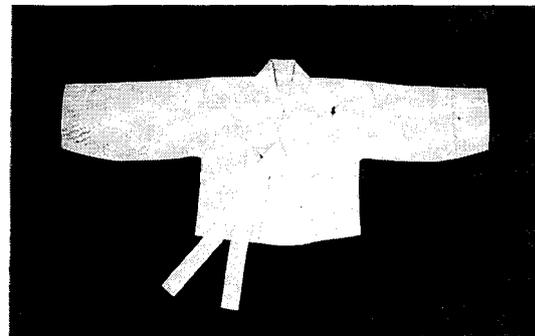
평소에 입는 것보다 크고 넉넉하게 겹으로 만들며, 동성은 종이를 받치지 않는다. 길이는 67cm, 화



<그림 2> 도 포



<그림 3> 중치막



<그림 4> 저고리

장은 80cm, 뒤폭은 59cm로 만든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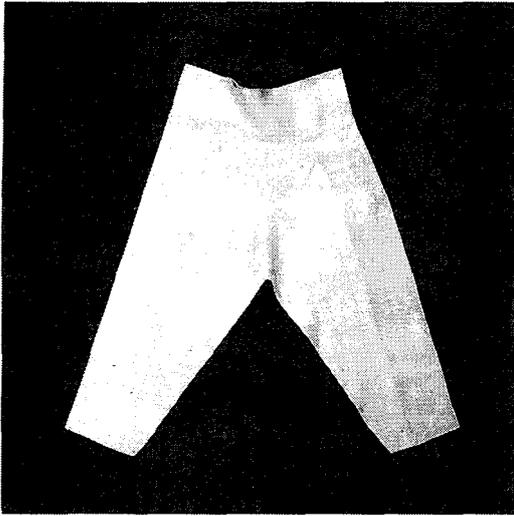
(5) 속적삼

홀으로 만들고 깃은 평상복과 반대로 달며, 입힐 때에는 솔기가 직접 살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서 저고리 안에 끼워 시쳐 놓는다. 길이는 65cm, 화장 76cm, 뒤폭 57cm로 한다.

(6) 바 지

평소에 입는 것보다 크고 넉넉하게 겹으로 만든다(그림 5).

(7) 속고의



<그림 5> 바 지

속고의는 바지보다 약간 작게 홀으로 만들고 술기가 직접 살에 닿지 않도록 뒤집어 바지에 끼워 시쳐 놓는다.

(8) 복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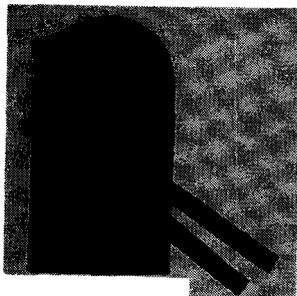
검은 고사를 사용하여 복건을 만든다. 길이는 68cm, 넓이는 25cm로 한다(그림 6).

(9) 떡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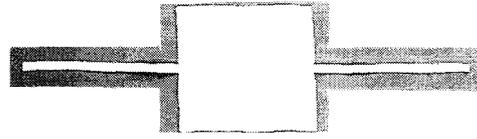
얼굴을 싸는 보로 겉은 검은색, 안은 남색으로 겹으로 만들며 양쪽에 끈을 단다(그림 7).

(10) 과 두(褒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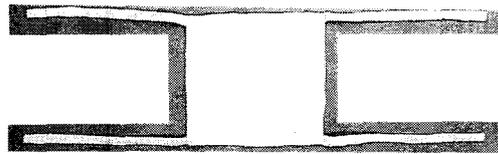
머리를 싸는 보로 겉은 검은 색, 안은 남색의 겹으로 만들며 네 귀에 끈을 단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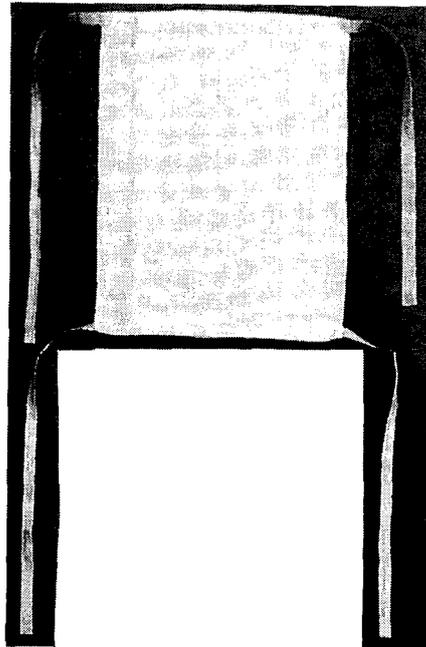
<그림 6> 복 건



<그림 7> 떡 목



<그림 8>褒 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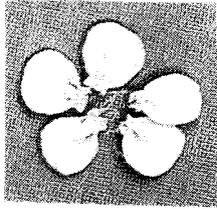
<그림 9>褒 肚

(11) 과 두(褒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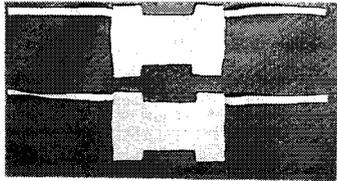
배를 가리는 보로 褒頭보다 크게 만들며 모양은 동일하다. 심의까지 입힌 다음 과두로 묶는다(그림 9).

(12) 오 날

좌우 손톱과 좌우 발톱, 머리카락을 넣는 다섯 개의 주머니이다(그림 10).



<그림 10> 오 낭



<그림 11> 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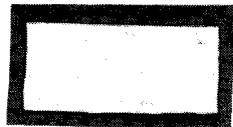
(13) 악 수
손을 싸는 보로 남색에 자주 안을 바쳐 겹으로 지었으며, 양쪽에 끈이 달려 있고 좁은 곳을 손바닥에 대고 손을 찬다(그림 11).

(14) 베 개
남색의 명주나 단을 사용하여 만들며, 베개 속에는 명주 솜을 약간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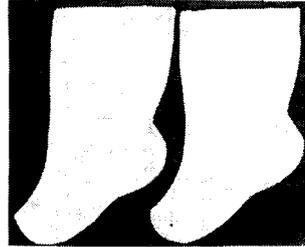
(15) 턱받침
베개와 같은 방법으로 만드나, 베개보다 약간 작게 만든다(그림 12).

(16) 버 선
버선은 평소에 신는 것보다 크게 만들며, 겹은 명주로 하여도 안은 베로 하여 겹으로 만든다(그림 13).

(17) 허리띠 · 대님
허리띠의 길이는 175cm, 넓이는 5cm로 만들며, 대님은 남색으로 하기도 하고 수의 천에 따라 하기도 하며, 길이는 70cm, 넓이는 2.5cm로 한다(그림 14).



<그림 12> 턱받침



<그림 13> 버 선



<그림 14> 허리띠

(18) 행 전

(19) 대렴금
대렴금은 대렴할 때 쓰이는 이불로 5폭으로 만들며, 자주 깃에 남색 길을 달고 흰 안을 받쳤다. 현대에는 단, 명주, 안동포, 삼베 등으로 한다.

(20) 소렴금
이는 세 폭으로 된 이불로 남색 길에 자주 깃을 달며, 흰 안을 받친다.

(21) 천 금
대렴을 끝내고 관 위에 덮는 천으로 명주나 삼베를 사용하여 겹으로 만든다.

(22) 지 요
지요는 관 밑에 까는 요로서 겹으로 만든다.

(23) 습 신
베나 비단으로 만들며, 실제로 신는 신이 아니고 형식만 갖추는 신이다.

2) 여자 수의
여자 수의는 원삼(圓衫), 대대(大帶), 당의(唐衣), 삼희장저고리, 겹저고리, 속겹저고리, 속격삼, 겹 겹치마, 단속곳, 겹바지, 속속곳, 여모(女帽), 먹목, 과

두, 오낭, 악수, 베개, 탁발침, 벉선, 과두,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요, 습신으로 구성된다²⁴⁾.

(1) 원 삼

원삼은 여자의 예복으로 모양은 신부가 입는 원삼과 같고, 치수만 크게 한다.

옷감은 명주나 단으로 하고 연두 길에 다홍, 노랑의 색동을 달고 끝에는 흰 한삼을 단다. 수의의 길은 연한 색으로 흰색이나 옥색을 하며 색동도 연한 색으로 한다(그림 15).

(2) 대 대

대대는 7cm 나비에 350cm의 길이로 하고 동심결로 맺는다.

(3) 당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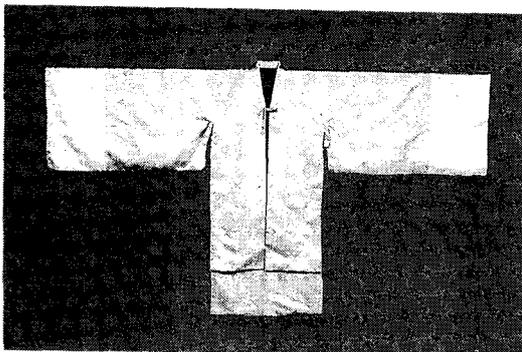
당의는 한삼 밑에 바쳐 입는 옷으로 명주나 고사 단으로 하며, 저고리 보다 넉넉하게 하여야 한다. 길이는 75cm, 뒤폭 55cm, 화장 78cm로 한다.

(4) 삼회장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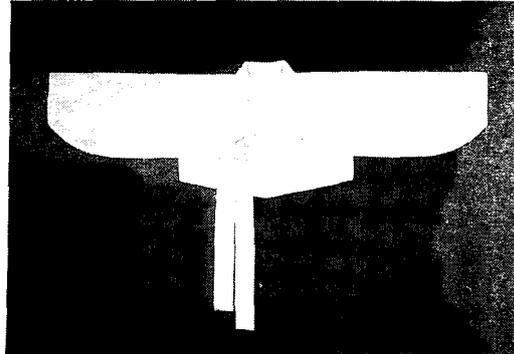
당의 밑에 입는 것으로 연두 삼회장 저고리나 반회장 저고리로 하고 끝동은 흰 거들지를 달기도 한다.

(5) 겹 겹저고리

저고리도 평상시의 것보다 크고 넉넉하게 한다(그림 16).



<그림 15> 원 삼



<그림 16> 저고리

(6) 속 겹저고리

속저고리는 분홍 겹저고리로 만들고 고름과 동정은 달지 않는다.

(7) 속적삼

속적삼은 세포로 홀으로 만들고 깃만 반대로 달아 솔기가 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뒤집어 속저고리에 끼워 시친다.

(8) 겹 겹치마

홍색의 겹치마 밑에는 청색의 속치마를 입힌다. 옷감은 명주나 단, 베로 만들며, 치마폭도 짝수로 하지 않고 홀수로 다섯 폭으로 하며, 흰 안을 받쳐서 겹치마로 하고 속 겹치마와 함께 허리를 단다. 현재는 무색으로 많이 한다(그림 17).

(9) 속 겹치마

(10) 단속곳

단속곳은 홀으로 하고, 옷감은 단이나 명주를 사용한다(그림 18).

(11) 겹바지

겹바지는 단, 명주, 베를 사용한다.

(12) 속속곳

속곳의 모양은 홀으로 세포(細布)로 하고 단속곳,

24) 유송옥,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380,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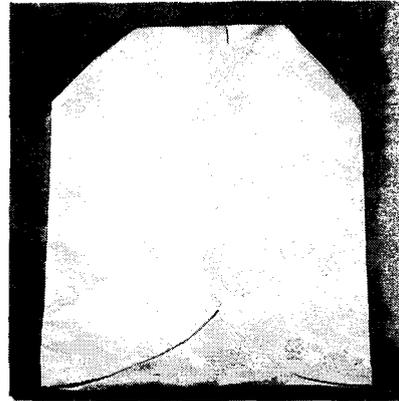
<그림 17> 치 마



<그림 18> 단속곳

겉바지, 속곳의 순으로 단속곳 허리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단다.

(13) 여 모



<그림 19> 여 모

검은색에 다홍 안을 받혀 겹으로 한다(그림 19).

(14) 떡볶, 과두, 오냥, 악수, 베개, 턱받침, 버선, 과두, 대렴금, 소렴금, 천금, 지요, 습신은 남자의 것과 같다^{25,26)}.

3) 수의의 착용절차

남자의 경우 심의를 퍼놓고 두루마기는 심의에 끼워 포개고 저고리에 적삼을 끼워 포개되 뒷고대와 좌우 소매 끝을 실로 꿰매어 놓고 고의는 바지에 끼우며 바지 허리를 꿰매되 모두 실 끝을 길게 늘리어 밖으로 나오게 하여 뽑아내기 편하게 한다. 시체를 묵묵시킨 뒤에 포건(布巾)을 자에 들썩워서 시체의 허리 밑으로 가로 놓는다. 한 사람은 머리를 받들고 한 사람은 두 정강이를 받들고 또 좌우에 각각 한사람씩 포건의 한 끝씩을 들어서 습석(襲席)으로 옮겨 놓는다. 다음에 좌우 버선을 먼저 신기고 바지를 입히되 두 사람은 두 다리를 들고 두 사람은 바지의 허리를 맞잡아 좌우의 발을 바지 허리에 넣은 뒤에 점점 하체를 들면서 바지를 위로 차켜올려서 입히고 대님을 맨 뒤에 행진을 친다. 바지허리는 잘 접어서 허리띠를 매되 자 끝으로 해서 밑으로 잘 넣고 시체 의로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여자의 경우는 치마를 입히어 매되 또한 자 끝으

25) 박선영, 전통한복작품집, 대흥기획, pp.168-186, 1993.

26)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pp.331-335, 1998.

로 가로 놓는다. 다음은 끼워 놓은 상의를 입혀되 지교(紙絞)로 좌우 팔다리, 무릎 위를 단단히 묶고 가만히 시체를 들어서 시체의 허리가 옷깃에 닿게 한 뒤에 좌우에 각각 한사람씩 한 손을 수구에 넣어서 악수를 붙잡고 한 손으로 옷깃을 맞잡아 점점 치켜올려 옷매무새를 정돈한다. 그 뒤에 지교, 포건과 꿰맨 실을 뽑아내고 옷깃을 오른쪽으로 하여 옷고름을 차례로 맨다. 다음 망건과 복건(여자는 여모)을 씌운 뒤 충이와 악수를 써야 하고 떡묵으로 싸매고 대대와 조대를 매며 신을 신기되 들때 끈을 꿰어서 발등에 매고 나머지 끈으로 좌우발을 한데 묶은 뒤에 흠이불을 덮는다²⁷⁾.

2. 현대 기성품 수의

현대 수의 전문점을 포함한 장의사, 병원 영안실을 포함하여 수의의 판매현황을 보면 대부분 기성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 구성을 보면 남자의 경우는 지요, 천금, 속바지, 바지, 속저고리, 저고리, 두루마기, 도포, 대님, 허리띠, 도포끈, 버선, 베개, 악수, 떡묵, 오남으로 구성되며, 여자의 경우는 지요, 천금, 속속곳, 단속곳, 속치마, 겹치마, 속저고리, 저고리, 원삼, 대대, 버선, 베개, 악수, 떡묵, 오남으로 구성된다^{28,29)}. 그러나 실제 수의의 품목은 특상품의 경우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만 도포와 원삼이 추가되며, 오남은 삼남으로 약식화되고 있으며, 떡묵은 '면도'의 명칭으로 일반화 되고 있다³⁰⁾.

3. 기성품 수의의 문제점과 개선점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성품 수의의 문제점으로는 재질과 품질, 치수, 가격을 들 수 있다.

1) 수의의 재질과 품질

수의의 옷감은 공단, 명주, 삼베, 모시, 능, 생고사 등을 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천연 섬유중 대표적인 비단과 삼베를 주로 사용하였다. 현대에는 삼베의 사용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로는 삼베의 특수한 성분이 항 바이오 작용으로 고인의 사체에 잡벌레나 집균의 침범을 막아주며, 산에 강한 성질로 뻣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삼베를 선호하고 있다³¹⁾.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100%의 삼베나 명주를 사용하지 못하고 삼베 대응으로 면과 침을 섞어 짜거나 면을 짜서 물들인 인조 마포의 형태인 '중국산 베'를 사용하고 있으며, 명주 대응으로 인조견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광목이나 옥양목 등으로 수의를 만들기도 한다³²⁾. 따라서 수의의 재질은 각 가정의 능력이나 믿음, 예외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재질에 있어서 엄격한 원산지 표시와 성분표시가 이루어져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³³⁾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수의의 형태의 치수

수의의 형태는 생전 예복과 같은 길복으로 수의의 크기는 일반의류에 비하여 매우 크게 만든다. 이는 수의를 입혀 드릴 때 고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것이 예외에 어긋나는 행위³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다만 생전의 옷보다 크고 넉넉하게 만들어 본인의 체격과 옷감의 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베를 수입해 오면서 수의도 중국에서 제작하여 저고리의 여밈, 두루마기의 깃, 치수 등이 일정치 않으며, 수의의 크기도 남녀 각각 한 치수로 되어 있으나³⁵⁾ 가슴둘레, 화장, 총장에 따라 구분하여 대·중·소로 치수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27) 한국민속대관 1,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p. 625, 1995.

28) 한국장례토탈서비스, www.jangletotal.co.kr.

29) 명가, www.024.co.kr

30) 강경아, 대구 경북지역 수의관련업체의 실태와 의식구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7-35, 1998.

31) 임준, 수의의 지역별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26-127, 2000.

32) 광명숙, 우리나라 수의문화와 제작방법,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43-46, 1999.

33) 최용진, 박미희, 병원장례식장 소비자 불편실태 및 해소방안, 한국소비자 보호원, 1998.

34) www.jangeusa.com.

35) www.jangeusa.com.

www.janguisa.net.

3) 수의의 가격

수의의 가격은 천의 종류와 재질, 생산지에 따라 차이가 가장 심하며, 도매와 소매의 차이 또한 너무 크게 나고 있는 것으로 업체별 수의의 가격 또한 차이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n-line상의 수의(壽衣)의 가격은 janguisa.net의 경우 120~190만원까지이며, jangjae.co.kr의 경우는 화장용 수의인 경우에는 20~50만원까지, 매장용은 40~120만원, jumart.co.kr의 경우는 290~320만원, dreamwiz.com은 99~139만원까지로³⁶⁾ 적정한 가격과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므로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해야 한다.

4. 화장용 수의

현행 화장용 수의는 매장용 수의를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앞으로 화장문화가 보다 활성화,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이에 따른 수의의 개선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우리나라의 장묘제도는 시대에 따라 그 양식을 달리하여 변화, 발전하였는데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는 매장법이, 통일신라 이후 고려시대까지는 화장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조선시대에 매장이 제도화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상장례는 조선시대 이전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했으나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는 유학의 영향을 받은 주자가례에 의한 매장문화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 가는 묘지난, 풍수해, 나무 뿌리와 벌레의 침입으로 인한 시신 훼손, 후손들의 무관심과 비뚤어진 장례문화는 지금까지의 장례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깨끗하고 경제적이며, 관리까지 편리한 화장문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선진적인 장례문화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장례형식이다. 따라서 장례문화의 변화는 지금까지 입혀져 왔던 수의의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새

로운 화장문화에 맞는 수의의 대안(代案)이 요구된다. 첫째, 평상복의 착용이다. 미국의 경우 평상시에 입던 의복 중 흰색이나 옅은 색의 옷을 입는 것으로 한국 장묘문화 개혁 범 국민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의 의견도 “평시 즐겨 입었던 평상복중 화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천연소재로 된 것을 입히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한지로 된 수의이다. 한지는 물을 먹으면 튼튼해지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수의를 만들면 화장시 환경오염물질 배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 한지의 수의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간소화된 수의이다. 현재 시중에 있는 많은 수의들은 그 가짓수나 형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여, 천연섬유인 무명을 기본으로 하여 남자의 경우 두루마기와 바지, 저고리, 여자의 경우는 두루마기와 치마, 저고리로 규격화하여 수의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화장용 수의는 지금까지 우리의 정서 깊숙이 스며 있었던 수의를 입히되 품목을 간소화, 규격화하는 것이 적당하리라 생각한다. 남자는 바지·저고리·두루마기 여자는 치마·저고리·두루마기를 준비하되 크기에 있어서는 대, 중, 소로 나누며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소재는 100% 무명으로 규격화하여 수의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과 성분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환경오염까지 생각하는 올바른 수의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경아, 대구, 경북지역 수의 관련업체의 실태와 의식구조,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강인구, 백제의 화장 본묘, 백제 고분 연구, 일지사, 1977.
곽명숙, 우리나라 수의문화와 제작방법,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부식, 삼국사기 권 7, 민족문화 추진회, 1973.
김원룡, 한국고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김홍은, 한국의 화장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 농업과학

36) www.dreamwiz.com
www.jangjae.co.kr.
www.kpungnam.com.

연구, 1999.

평가, www.024.co.kr

박석안, 화장장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박선영, 전통한복작품집, 대흥기획, 1993.

배성산, 한국장묘문화 개혁을 위한 제언, 중앙장례문화원 1999년 11월 특집호.

성종실록, 조선왕조 실록 CD, 서울시스템, 1998.

양만성, 서울시 장묘제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유송옥, 우리의 전통예절,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8.

유송옥, 한국복식사, 수학사, 1998.

이영애, 상장례문화의 발전적 변화를 위한 국민의식구조와 태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임순길, 우리나라의 장묘제도의 비용실태와 개선방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임준, 수의의 지역별 실태와 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장의사, www.jangeusa.com.

조정래, 장묘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화장에 관한 연구,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정길자, 고려시대 화장에 대한 고찰, 부산사학, 1983.

정길자, 신라 납골기 연구, 한국 고고 학보 제 8집, 1980.

조선일보, 국내 장묘문화실태, 1994년 11월 14일.

조종삼, 한국의 묘지- 한국묘지에 관한 법적 연구, 대원출판사, 1987.

www.dreamwiz.com

www.jumart.co.kr.

주식회사 영진 장재, www.jangjae.co.kr

중앙일보, 본인사후 화장찬성 76.7%, 1999년 9월 20일.

지건일,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신문, 복원의 유적을 찾아서, 1991.

지성남, 환경적, 사상적 고찰을 통한 장묘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최용진, 박미희, 병원장례식장 소비자 불편실태 및 해소방안, 제3회 장례문화 박람회, 1998.

풍남장의사, www.kpungnam.com.

한국민속대관 1, 고려대학교 민속문화연구소, 1995.

한국장례토탈서비스, www.jangletotal.co.kr20.

허영호 장례용품 전문점, www.janguisa.net.